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Global SME Policy Trend

- 📍 **스페셜리포트** 중소기업 혁신 및 디지털화와 지원 정책
- 📍 **해외동향** 독일, 중견 · 중소기업의 AI 활용 확산을 위한 AI전략 발표(등 14건)
- 📍 **주요일정** Entrepreneur Summit (인도 뉴델리, 2019.7.17.~18)(등 6건)



목 차

I. 스페셜리포트

중소기업 혁신 및 디지털화와 지원 정책

요약	1
1. 중소기업과 혁신	2
2. 중소기업 혁신과 디지털화	3
3. 중소기업 혁신 및 디지털화 촉진 정책	7
4. 결론	14

II. 해외동향

〈미국〉

1. 미국 중소기업투자회사, 2018회계연도에 1,151개 중소기업에 55억 달러 투자 .. 15

〈영국〉

1. 영국, 여성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제안 .. 16

〈독일〉

1. 독일, 중소기업 디지털화 프로젝트 완수율 상승 .. 17
2. 독일, 중견·중소기업의 AI 활용 확산을 위한 시전략 발표 .. 18



목 차

〈일본〉

1. 일본, 중소기업 기업 당 특허출원 건수는 대기업의 1/20 이하 19
2. 일본, 중소기업의 현금외 거래 지불수단은 신용카드가 50% 정도 차지 20
3. 일본, 민관펀드가 벤처기업 자금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21
4. 일본,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가 실질GDP 상승 효과 유발 22
5. 일본, 지자체가 신약개발 벤처 지원을 주도 23
6. 일본, 지방 성장을 목표로 한 ‘글로벌 성장전략’ 발표 24
7. 일본, 스타트업 펀딩 프로그램의 규모 및 안정성 부족 25

〈기타〉

1. OECD, 미래 일자리 변화 대응을 위해 성인학습 강화 필요 26
2. OECD, 공공-민간 혼합형 벤처 캐피탈에 대한 정책적 관심 필요 27
3. OECD, 혁신 생태계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 실시 ... 28

Ⅲ. 주요일정

1. Tech Open Air (독일 베를린, 2019.7.2.~5) 29
2. RISE (중국 홍콩, 2019.7.8.~11) 29
3. STARTUPFEST (캐나다 몬트리올, 2019.7.9.~12) 29
4. OSCON 2019 (미국 오레곤, 2019.7.15.~18) 30
5. Entrepreneur Summit (인도 뉴델리, 2019.7.17.~18) 30
6. Seaside Startup Summit (아르메니아 세반호, 2019.7.28.~8.3) 30

I

스페셜리포트



중소기업 혁신 및 디지털화와 지원정책

요 약

- 중소기업은 혁신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혁신의 기본적인 원천이지만 기업 비중을 고려할 때 혁신에 대한 기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의 출현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며,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포착이 가능
- 모든 부문에서 디지털 주도 혁신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중소기업 지배적인 산업에서도 이미 디지털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디지털기술은 중소기업들이 기업 운영을 통합하고, 비용을 감소시키며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
 - 디지털기술 사용으로 중소기업들은 지식 파트너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우수한 구인 사이트, 아웃소싱 및 온라인 업무 채택 등을 통해 역량과 재능에 용이하게 접근
 - 실제로 디지털 집약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부가가치와 고용증가율에서 디지털 집약도가 낮은 기업을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
 -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디지털전환에 의해 열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비전과 자원이 결여
-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각국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산업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는데 중점
 - 먼저 디지털기술의 적용은 중소기업들이 차세대 생산혁명으로 이행하는 핵심 지렛대이자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적극 지원
 - 국가혁신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들은 정책 입안과 실행에서 중소기업의 제약과 잠재성에 대한 고려를 확대하고, 혁신 정책에 중소기업정책을 통합시키고자 노력
 - 비즈니스 혁신네트워크 확장 및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기업가를 국가 및 국제 혁신 네트워크에 연결시키는 것은 변화와 성장의 핵심 조건
 - 정부데이터공개(Open Government Data, OGD)는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OECD국가들의 정책은 중소기업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적 방향성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책 설계 및 구현에 대한 접근법은 국가마다 매우 상이
 - 중소기업의 이질성, 비즈니스 생태계의 다양성 및 당면한 긴급과제 등은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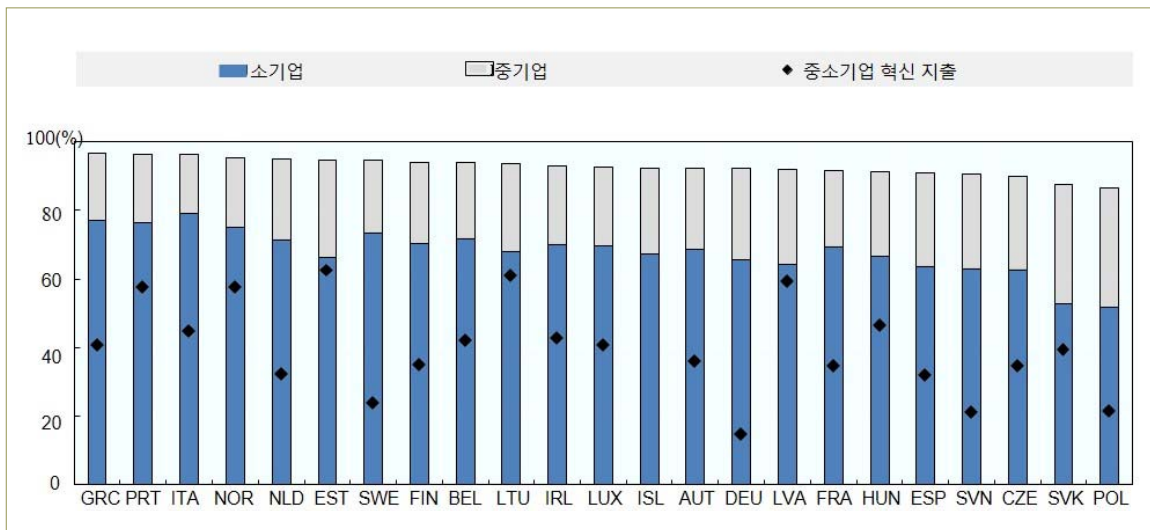
【원 문】

- OECD, SME and Entrepreneurship Outlook 2019, 2019. 5

1 중소기업과 혁신

- 중소기업은 혁신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EU통계국(Eurostat)이 10명 이상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원국별 혁신 서베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혁신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함
 - 제품 또는 프로세스 혁신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출 비중 역시 전체 혁신기업의 20~60%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혁신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여는 전체 기업 수 대비 그 비중을 고려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1〉 중소기업 혁신 기업 수 및 혁신 지출 비중(2016년)



자료 : Eurostat (2019[8]), Eurostat Community Innovation Survey (CIS-2016)

주 : 10명 이상 고용 기업

- 중소기업은 다양한 사용자 니즈에 적응해 공급을 조정하고 신규 또는 니치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혁신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함
 - 혁신적 스타트업은 기존 기업들이 상업화하지 않은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제공함
 -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높은 위험 수용성과 유연성, 복잡한 정보 및 기술의 통합 능력, 민첩하고 적응력이 우수한 문화, 높은 응집력과 집단 목적의식 등에서 경쟁우위를 갖고 있음
 - 이러한 요소들은 소기업들이 규모에 따른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게 함

- 소프트웨어, 나노기술, 생명공학 및 청정기술과 같은 일부 전략부문에서는 신생기업 및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요한 동력임

□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으로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전과는 달리 기업들이 주문, 판매, 마케팅 또는 온라인 बैं킹, 비즈니스 파트너 및 공공기관과의 교류 등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ICT는 기존의 비즈니스 관행을 파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ICT는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는 수요를 발생시키고 혁신 사이클과 시장화 시간을 단축시킬뿐만 아니라 소비자 행동과 기대를 변화시키는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 소비자 수요는 개인화, 맞춤화 및 온 디맨드(on-demand) 제품과 서비스의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임
 - 최종 수요가 무수히 많은 비즈니스 분야로 분할됨에 따라 기업들은 고객 중심의 전략을 개발하고, 제품 및 서비스 마케팅에 '세그먼트 오브 원(segment of one)'¹⁾ 접근을 채택하게 됨
 - 또한 새로운 소비모델이 요구하는 수요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인맞춤화(customization)와 관련해 소규모 기업의 경우 단위비용을 줄이면서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역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음

② 중소기업 혁신과 디지털화

□ 디지털 기술은 대량 개인맞춤화(mass customization)에 대한 큰 기회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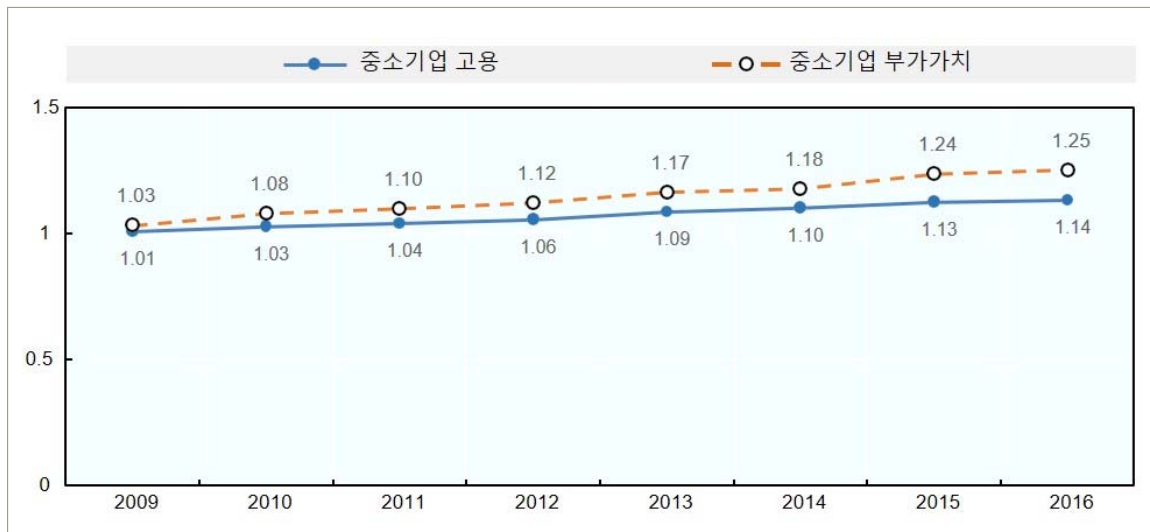
- IoT와 빅데이터 분석은 소비자 행동분석을 향상시키고 제품 차별화와 개인맞춤화, 사용자 기대에 대한 우수한 예측, 소비자 경험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지식 창출을 가능하게 함
- 3D 프린팅은 대량 개인맞춤화의 또 다른 주요 동인이며, 기술 성숙, 프린팅 비용 하락 및 프린팅 자재에 대한 접근 확대 등에 따라 더욱 폭넓게 이용될 것임

□ 전 산업 부문에서 디지털 주도 혁신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매업과 같이 전통적으로 중소기업 지배적인 산업에서도 이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1)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BCG가 제창한 개념으로 고객 세분화 전략을 보다 세밀화해 '당신 한사람을 위한 서비스, 상품'이라는 수준까지 고객 본위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함

- 전자상거래는 게임 체인저이며, B2C 및 B2B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는 주요 동인임
 - e-소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모든 규모의 기업과 국가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e-소매를 통한 매출도 증가하였음
 -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반 기업들은 거대 석유 및 은행 산업이 차지하던 시가총액 상위 자리를 차지하였음
- 디지털 기술은 중소기업들이 기업 운영을 통합하고, 비용을 감소시키며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함
- 디지털화는 중소기업의 시장조건 형성과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중소기업이 ‘글로벌화 기업으로 재탄생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함
 - 또한 규모 확장의 가능성을 변화시켰고 유형에 따라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도 상당한 규모, 시장점유율 및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비즈니스 성장 형태가 등장했음
 - 인터넷을 활용해 고정비용을 낮추고 시장에 효과적으로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의 여러 측면을 아웃소싱하는 ‘린 스타트업(lean starts-up)’이 등장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사용으로 중소기업들은 지식 파트너와의 연결뿐만 아니라 우수한 구인 사이트, 아웃소싱 및 온라인 업무 채용 등을 통해 역량과 재능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됨
- 이와 함께 모바일 뱅킹, 온라인 지불 등 다양한 금융수단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모바일 뱅킹과 온라인 지불은 전통적인 중소기업 금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디지털화는 정보비대칭 및 담보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게 하였음
- 실제로 디지털 집약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부가가치와 고용증가율에서 디지털 집약도가 낮은 기업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09년 이후 ’16년까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디지털 집약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낮은 중소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증가율 차이는 지속 확대되고 있음

〈그림 2〉 중소기업 디지털 집약도와 고용 및 부가가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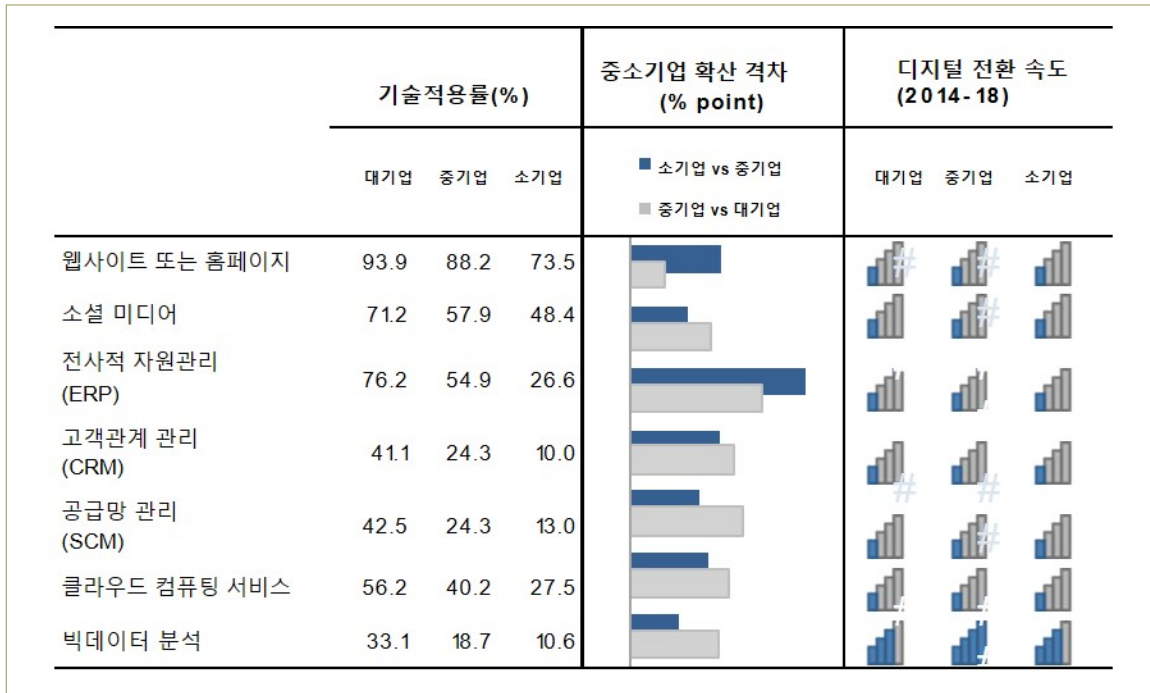


자료 : OECD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 Database, 2018

주 : 디지털 집약도가 낮은 중소기업 대비 높은 중소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증가 추이

-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의해 열려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비전과 자원이 결여되어 있음
 - 디지털기술 적용패턴은 기업규모와 기술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 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사용 비율이 매우 낮음
 - 기업들의 ERP 시스템 도입은 특정 규모 이상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ERP 확산 격차는 중기업과 대기업보다는 소기업과 중기업 사이에 더 크게 나타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또는 빅데이터 분석 이용에 있어서 소기업들과 규모가 큰 기업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그림 3〉 기업규모별 디지털 확산 비교(OECD 평균, 2018년)



자료 : OECD, OECD ICT Access and Usage by Businesses Database 2019, 2019. 2.15

주 : 1. 기술 적용률은 관련 소프트웨어, 툴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비중

2. 확산 격차는 기업규모별 OECD 평균 확산률의 차이

3. 디지털 전환 속도는 2014~2018년 기술 적용률의 연간 증가율

4. 기업규모는 종업원 수에 따라 분류 : 소기업(10~49명), 중기업(50~249명), 대기업(250명 이상)

□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소기업이 온라인 추가 처리 능력이나 스토리지 용량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여 자신의 필요에 맞게 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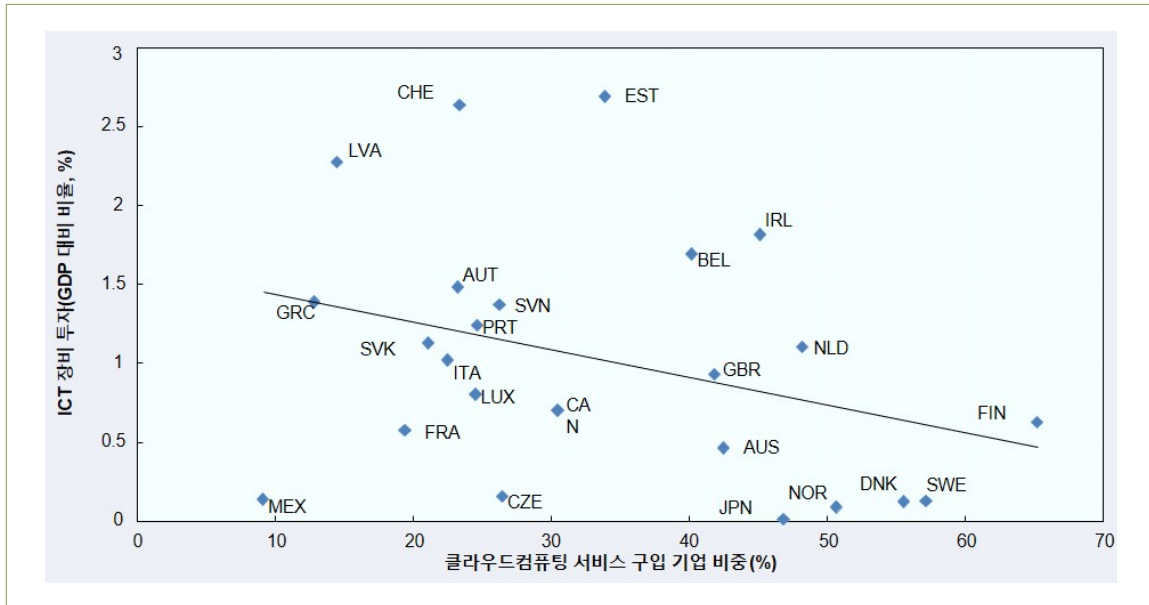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첫번째 용도는 이메일 서비스 및 저장용량임

- 또한 다른 기술의 보급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직 또는 마케팅 관행을 지원함

○ 유연성과 확장성 외에도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에 대한 선행투자 및 유지 보수, IT팀과 인증에 대한 정기적 지출을 제거함으로써 기술 업그레이드 비용을 절감 시킴

-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채택률이 높을수록 소프트웨어 획득 및 디지털 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ICT 관리 모델로 이동하는 장비에 대한 ICT 투자의 강도는 낮아짐

〈그림 4〉 클라우드 컴퓨팅 보급률과 ICT 투자와의 관계(2017년)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 Database 2019

- 그러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채택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R&D, 인적자원, 조직 변화 및 프로세스 혁신과 같은 보완적인 지식기반 자산에 대한 투자 부족과 관련이 있음
 - 이러한 지연은 기술변화를 혁신 및 생산성 증가로 전환시키는 능력에 영향을 미침
 - 또한 중소기업은 위험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식, 자원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디지털 보안 및 개인정보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③ 중소기업의 혁신 및 디지털화 촉진 정책

- 중소기업은 디지털화에 뒤쳐져 있으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디지털 방식으로 강화된 비즈니스 관행을 채택할 가능성이 적음
 - 중소기업은 또한 데이터 보호에 주도적이지 못하며,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복잡하고 과도하게 연결된 인프라 시스템에서 취약한 노드가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또한 디지털 전환 관리 기술을 습득할 여지가 적고 ICT 교육에 종사하

- 는 직원이 너무 적음
 -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력 부족, 특히 혁신에 중요한 관리, 의사소통 또는 문제 해결 기술 부족에 여전히 직면해 있음
 -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대기업과의 격차를 좁히는 등 최근의 진전이 강화되어야함
 - 또한 비정규직 증가는 아웃소싱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재능과 훈련된 인력을 찾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중소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각국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산업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대부분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가속화, 중소기업 혁신지원, 혁신네트워크 확대 및 중소기업 참여 확대, 데이터 및 혁신자산 공개와 보호를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
- 디지털기술의 적용은 중소기업들이 차세대 생산혁명으로 이행하는 핵심 지렛대이자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디지털 인프라 개선 및 통합과 함께 기술 실행, 문제해결 진단 또는 새로운 e-비즈니스 실행에 대한 중소기업 맞춤형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어떤 경우에는 재정 및 기술 지원이 기술적 변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조직적 변화에 대한 훈련과 지도와 함께 실시되기도 함

〈표 1〉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 정책 사례

국가	지원 정책	지원 목적 및 내용
기술 도입에 대한 재정 지원		
브라질	BNDES 기술 솔루션(BNDES Soluções Tecnológicas), 2015	• 중소기업 타겟 대출, 특히 기술 및 혁신 투자 촉진 목적
프랑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SMEs), 2018	• 지역 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재정 지원
헝가리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Non-repayable aids, 2016)	• 일반 입찰을 통해 중소기업 디지털 개발을 지원 (예, ERP, CRM, 모바일 및 클라우드 솔루션 등)
스페인	혁신 클러스터 이니셔티브(Innovative Clusters Initiative , 2016)	• 디지털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 보조금
터키	중소기업 발전 조직 프로그램(SME Development Organisation (KOSGEB) programme), 2015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포함해 중소기업이 IT 역량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펀딩 프로그램

국가	지원 정책	지원 목적 및 내용
훈련, 정보 및 지원		
오스트리아	중소기업 디지털 프로그램(SME Digital Programme), 2017-18	- 중소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 이벤트, 웹세미나, 분석 도구 및 교육 프로그램 2019년 봄에 프로그램이 끝나고, 후속 프로그램은 컨설팅 서비스 외에 구체적인 실행 수단을 활성화시킬 것임
캐나다	경제성장에 대한 연방-지방-지역 활동(Federal-Provincial-Territorial Action on Economic Growth Plan), 2018-20	- 높은 자질을 가진 인력 채용 및 그들의 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 - 디지털 역량 가속화 및 중소기업의 기술 적용을 강화
독일	고우 디지털(Go Digital), 2017	중소기업에게 IT 보안, 온라인 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외부 자문을 제공
뉴질랜드	디지털 비즈니스 아카데미(Digital Business Academy), 2016	- 테크 시티 UK(Tech City UK)와 협력해 전문가가 설계한 무료 온라인 코스를 제공, 디지털 비즈니스 시작, 성장 또는 참여를 지원 - 과정은 디지털 제품 개발, 소셜 미디어 캠페인 활용, 비즈니스에 대한 재무 마스터 등 핵심 비즈니스 역량을 커버
스위스	지역 정책 코칭(Regional Policy Coaching), 2016	농촌 및 산악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 이전을 향상
터키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Consultancy and education programme), 2016-19	중소기업들의 컴퓨터 및 정보기술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
부문 타깃형 접근		
덴마크	공공-민간 파트너십	중소기업의 ICT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특정 부문과의 파트너십(예, 도소매와 운송)
뉴질랜드	중소기업 디지털 기술 적용을 위한 부문 파트너십(Sector partnerships for SME digital technology adoption)	-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보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1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y), 기술산업협회(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s), 지역경제개발기관(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gencies) 및 다양한 기업 커뮤니티들이 공동으로 개발
스페인	전자상거래 자극 프로그램(E-commerce Impulse Programme), 2017	전자 소매거래에 중소기업 참여를 활성화
	디지털화 국가전략:커넥티드 인터스트리 4.0	제조부문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을 포함한 새로운 제조기술 적용을 지원

자료 : OECD, SME and Entrepreneurship Outlook 2019, 2019. 5

- 국가혁신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들은 정책 입안과 실행에서 중소기업의 제약과 잠재성에 대한 고려를 확대하고 혁신정책에 중소기업정책을 통합시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 혁신정책에의 중소기업정책 통합은 R&D 조세 인센티브 설계에서 가장 두드러졌음
 - R&D 조세 인센티브는 점차 중소기업 쪽으로 맞춰지고 있으며, 이월 및 환불 가능 옵션의 도입은 소기업과 신생기업의 불충분한 조세부담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중소기업에게 세금공제 우대를 제공하고, 조세제도를 단순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준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
 - 중소기업을 위한 한계조세보조율은 캐나다,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는 지출한 비용의 30%를 넘고, 프랑스의 경우 40%에 달함
- 비즈니스혁신 자금조달에서 R&D 조세혜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특히 경쟁 보조금을 지속 사용하고 있음
 - '16년에 라트비아와 슬로베니아는 기업부문 R&D 지출(Business enterprise expenditure on R&D, BERD)의 90% 이상을 직접 정부자금으로 받았으며, 칠레, 그리이스, 헝가리, 포르투갈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도 70%를 초과하였음
 - 조세인센티브 또는 직접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R&D 지출에 기여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았음
 - 이는 대기업이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 해당됨
- 중소기업 타깃형 제도로 전환한 혁신지원정책 사례는 상업화 이전 공공구매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임
 - 공공구매는 OECD 국가의 정부지출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40%,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50%를 초과하나 공공구매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전체 시장에서의 비중보다 낮은 수준임
 -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시장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은 중소기업과 정부 양측 모두의 요인이 존재함
 - 정부 측면에서는 행정부담, 지불지연, 비효율적인 불만처리 메커니즘, 뇌물 수수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에 참여와 공평한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입찰의 복잡성, 공급업체가 요구하는 사전자격요건, 대량생산 요구 또는 혁신실패에 대한 위험회피 등이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표 2〉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정책

국가	지원 정책	지원 목적 및 내용
혁신정책 아젠다에 중소기업정책 목적을 주요 사항으로 편입		
체코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정책(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Policy), 2016-20	중소기업이 대규모 다국적기업과의 공동 R&D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와 재정 수단을 사용(예, 국가혁신펀드)
네덜란드	연합협정(Coalition Agreement), 2017	정부정책의 주요 목표 중 중소기업의 성장을 강조하도록 정책 개혁을 유도
EU 집행위원회	EU 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 (EIC)), 2017-20	- 최고의 혁신가, 기업가, 소기업 및 과학자의 국제적 성장을 지원 - EIC 파일럿은 SME 인스트루먼트 및 호라이즌 프라이즈(Horizon Prizes) 등 다수 채널을 통해 2018~20년 동안 27억 유로를 지원 - 또한 새로운 네트워킹, 멘토링 및 코칭 기회뿐만 아니라 유럽 혁신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
중소기업 타겟 직접 자금지원		
호주	기업 연구 및 혁신 이니셔티브(Business Research and Innovation Initiative), 2018-22	- 일련의 국가 정책과 서비스 제공 과제를 제안하고 혁신 중소기업을 초청해 솔루션을 개발 - 우승자는 제안된 솔루션의 기술적 및 상업적 유효성을 3개월에 걸쳐 테스트할 수 있도록 최대 10만 AUD의 보조금을 수령 - 가장 성공적인 솔루션은 향후 18개월 동안 프로토타입 개발 또는 개념 증명을 위해 최대 1백만 AUD까지 추가 지원 가능 2,550만 AUD가 프로젝트에 할당
에스토니아	개발 바우처 (Development Vouchers), 2016-23	- 중소기업의 실험적 연구를 장려 - 바우처는 기업가의 아이디어의 실행 가능성 평가를 지원 - 중소기업과 외부 혁신 파트너와의 협력 증진이 목표
아일랜드	비즈니스 혁신 이니셔티브(Business Innovation Initiative), 2016년 이후	고객 집중 프로세스 및 조직 혁신에 대한 지원 보조금
룩셈부르크	혁신 보조금(Innovation grants), 2017년 이후	- 중소기업의 프로세스 및 조직 혁신을 위한 보조금 - 도구 및 설비 비용, 연구, 특허 및 라이선스 비용, 인력, 간접비 및 운영비를 포함
영국	혁신 대출 파일럿 프로그램(Innovation Loans Pilot Programme), 2017	- 혁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 상품 - 혁신청(Innovate UK)은 2017년 말에 5천만 파운드의 혁신 대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 - 이 프로그램은 특별히 혁신 중소기업이 대상 - 혁신청이 매칭 보조 기금 이외에 대안적 형태의 혁신 금융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사용		
오스트리아	혁신 바우처(Patent Scheck (patent voucher)), 2016	중소기업이 특허청 특허심사관과 함께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도록 1만 2,500유로의 보조금 지급

국가	지원 정책	지원 목적 및 내용
		- 특허 취득이 가능할 경우 보조금은 전문 변리사 비용 및 신청 수수료까지 충당 - 현재까지 수혜자의 약 80%가 IP시스템의 새로운 고객
벨기에 (연방정부)	특허박스 개혁(Patent Box reform), 2016	중소기업이 보다 접근 가능한 제도를 만들고 소규모 기업의 라이선싱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스페인	IP 전략 플랜(IP Strategic Plan), 2017-20	- IP 품질 향상, 이전 및 국제화를 위한 다수 활동 - 중소기업과 기업가들은 국제 특허 및 활용 모델 적용을 위한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음
스위스	특허 조사 지원(Assistance on patent search)	연방 지식재산연구소(The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IPI)는 수출지향적 중소기업에게 특허, 지침 및 전문지식 검색을 지원

자료 : OECD, SME and Entrepreneurship Outlook 2019, 2019. 5

- 비즈니스 혁신 네트워크 확장 및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기업가를 국가 및 국제 혁신 네트워크에 연결시키는 것은 변화와 성장의 핵심 조건임
- 산업 및 클러스터 정책은 기술 업그레이드 및 GVC로의 통합을 위한 정책 개입의 우선 채널임
 - 클러스터정책은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에서 오랫동안 구현되어 왔지만, 국가(또는 지역)의 발전단계와 클러스터 자체의 성숙도에 따라 다른 특징이 있음
 - 산업클러스터 환경은 시장 상황, 기술 및 경쟁의 변화로 인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유럽 클러스터의 약 20%가 '08년과 '14년 사이에 시장 지위가 크게 바뀌었음
 - 국가별 클러스터정책은 네트워크기반 개발모델의 출현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지역에 있는 클러스터를 통해 국내외의 클러스터 간 연계를 구축하고 있음
 - 네트워크기반 접근법은 클러스터 리서치 구성 요소의 강화, 보다 강력한 산업-과학 연계, 클러스터 내에서의 학제 간 역량 강화 및 많은 부문 간 상호 작용을 포함함

〈표 3〉 중소기업의 혁신네트워크 접근 강화 정책

국가	지원 정책	지원 목적 및 내용
클러스터 정책		
캐나다	혁신 슈퍼클러스터 이니셔티브(Innovation Supercluster Initiative (ISI)), 2017-20	- 기술적 리더십 창출과 지역혁신생태계 활성화가 목표 - 고가치 전략적 투자와 산업 기금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 및 산업관련 연구소 간 새로운 산업주도 컨소시엄을 지원

국가	지원 정책	지원 목적 및 내용
독일	KMU-NEtC, 2016	• 다수 중소기업이 참여한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를 통해 야심찬 R&D 및 혁신 협력 추진을 목표 • KMU-NetC는 혁신전략 또는 독일 네트워크와 클러스터의 기술로드맵을 강화 • KMU-NetC는 새로운 자금조달 프로그램이며 연방 정부의 '중소기업 우선(Priority for the small business)' 프로그램의 일부
스페인	통합 클러스터를 위한 신 보조금(New grants for consolidating clusters), 2016	• 통합 클러스터를 위한 새로운 보조금으로 클러스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

엑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

호주	인큐베이터 지원 프로그램(Incubator Support Programme), 2016	• 높은 혁신 잠재력을 지닌 지역 또는 부문에서 새로운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를 개발하고 기존 혁신 기술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국내 또는 국제 전문 자문가의 파견 근무를 지원
오스트리아	글로벌 인큐베이터 네트워크(Global Incubator Network(GIN)), 2016-18	• 정보 및 연락처에 대한 접근 공유를 통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비즈니스 엔젤 등을 연결시키는 매칭 플랫폼 • GIN은 또한 국제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오스트리아 스타트업 및 오스트리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및 투자자를 지원
브라질	인큐베이트 기업에 연구자 지원(Support to Insert Researchers in Incubated Companies)	• 브라질 인큐베이터가 보육한 회사의 혁신적인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개발을 장려
포르투갈	국가 인큐베이터 네트워크(National Incubators Network), 2016	• 인큐베이터와 기업가정신 생태계간 집단적 효율성 향상이 목표
	인큐베이션 바우처(Incubation Voucher (Vale Incubação))	• 새로운 기업이 인큐베이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5천 유로를 제공
	인터페이스 프로그램(Interface Programme)	• 기술 인터페이스 센터, 경쟁력 클러스터, 협업 연구소 및 서플라이어 클럽 등을 지원
스페인	기업가적 국가 전략 및 스타트업 법(Entrepreneurial Nation Strategy and Startup Law), 예정	• 엑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 네트워크, R&D 및 혁신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등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목표

자료 : OECD, SME and Entrepreneurship Outlook 2019, 2019. 5

- 정부데이터공개(Open Government Data, OGD)는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정부는 공공행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에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OGD 접근 방식을 점차 확대함

- '17년에 실시된 정부데이터공개 3.0(Open Government Data 3.0)에 관한 OECD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및 파트너 간의 공개 데이터 정책 및 이니셔티브의 주된 목표는 민간부문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및 창업 촉진 등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임

4 결론

- OECD 국가들의 중소기업정책은 광범위한 전략적 방향성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책 설계 및 구현에 대한 접근법은 국가마다 매우 다름
 - 일반적인 중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 확산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전환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역량 향상, 혁신네트워크 및 다국적기업-중소기업 연계 확대, 제품시장, 공공구매 및 '선도(lead)' 혁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등이 주요 과제임
 -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정책 아젠다 가운데 중소기업정책 사항을 주류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수단을 사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혁신지원 패키지들이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개선되었으며, 대부분 OECD 국가의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이 R&D에 지출하는 것보다 공공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음
- 중소기업의 이질성, 비즈니스 생태계의 다양성 및 당면한 긴급과제 등은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 정부의 종합적인 접근이 성공의 핵심요소이며,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 강화, 국제적 동료 학습, 국가 및 하위 수준 지역 및 도시에 걸친 효율적인 다층적인 거버넌스 조정,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조정과 협조에 중점을 두어야함
 -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정책의 효과적인 설계, 실행 및 평가는 정책 시너지, 보완 및 상충관계에 대한 강력한 증거와 함께 보다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함

II 해외동향



1 미국 중소기업투자회사, 2018회계연도에 1,151개 중소기업에 55억 달러 투자

- 미국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BIC)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벤처 캐피탈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계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중소기업청이 인가한 SBICs(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자금을 제공
- '18년 12월 31일 현재 중소기업청이 인가한 305개의 민간 소유 및 관리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운영 중
 - SBIC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대해 303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중 중소기업청이 보증한 금액은 145억 달러
 - 2018회계연도에 SBICs는 29.8억 달러의 민간자본을 조달해 총 55억 달러를 1,151개의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은 25.2억 달러의 보증을 제공
- 그동안 의회에서는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미국 재생및재투자법 2009(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에서는 개별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 한도를 민간자본의 300% 또는 1.5억 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
 - 2014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서는 중소기업청이 SBICs에 제공할 수 있는 연간 레버리지 한도를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증액
 - 2016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서는 2개 이상의 SBICs가 공동 관리하는 레버리지 잔고를 2.25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증액
- 일부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높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

▶ 자료 : 미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 실시 현황(SBA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Program), CRS, 2019.4

② 영국, 여성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제안

- 엘리슨 로즈(Alison Rose)*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기업가들은 자금, 리스크, 역량, 일-생활 양립, 롤모델 등에서 남성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
 - 여성 기업가들은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낮는데다 초기자금의 평균 규모도 남성의 50% 이하
 - 기업 설립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성향도 차이가 있는데, 혼자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여성은 남성보다 55% 많은 수준
 - 남성에 비해 기업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여성 여성 기업가에 대한 지원 및 롤 모델도 부족
- * 엘리슨 로즈는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의 상업 및 민간 बैं킹 담당 CEO로 영국의 선도적인 비즈니스 여성의 하나로 평가되는 인물로, 영국 재무부는 여성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여성 기업가들이 직면하는 장벽에 대해 조사하도록 의뢰
- 여성 기업가정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기업가정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을 권고
 - 새로운 여성 기업가에 대한 투자 규정(new Investing in Female Entrepreneurs Code)을 통해 영국 자금 배분의 투명성을 제고
 - 여성 기업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새로운 투자 수단 실시
 - 영국의 기관 및 민간투자자들에게 여성 기업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투자를 권장
 - 가족을 돌볼 책임이 있는 기업가를 위한 기존 은행 상품을 검토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
 - 거주지 프로그램에 기업가와 은행원을 확대해 전문가에 대한 접근을 향상
 - 기존의 멘토십과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
 - 학교와 대학에 기업가정신 관련 과정의 개발과 전개를 가속화
 - 기업가 디지털 정보 저장소(entrepreneur digital first-stop shop)를 구축

▶ 자료 : 영국 여성 기업가정신에 대한 검토(The Alison Rose Review of Female Entrepreneurship), HM Treasury, 2019.3

③ 독일, 중소기업 디지털화 프로젝트 완수율 상승

- 독일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디지털 프로젝트 완수율이 높아지는 등 디지털화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15년과 '17년 사이에 중소기업의 30%에 해당하는 약 110만개 중소기업이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이전 기간보다 4%포인트 증가
 - 특히 모든 규모의 기업, 거의 모든 경제 부문에서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높은 교육수준과 자체적인 R&D 시행 능력이 디지털화를 촉진
-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것은 대규모(large) 중소기업으로 이들 중 디지털화 프로젝트 완수 기업 비율은 49%를 차지
 - 이는 이들 기업이 확장적인 IT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지역을 넘어서는 가치사슬에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자동화 수준이 높기 때문
 - 부문별로는 지식기반 서비스 제공자가 가장 높은 37%를 기록했고, 연구개발 집중 제조기업 중에서는 36%의 기업이 디지털화를 추진
 - * 소규모(small) : 종업원 5명 미만, 중규모(middle) : 5~49명, 대규모(large) : 50명~249명
- 고객·서플라이어와의 접점에 대한 디지털화는 독일 전역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주도
 - 이는 이미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글로벌하게 영업하는 대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이러한 단계를 완료했다는 것과 관련
 - 반면 새로운 IT 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적용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
 - 가장 공통적인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비즈니스 환경 관련으로 가치사슬 내에서의 접점(contacts) 또는 고객과의 접점 디지털화
- '17년에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 149억 유로 정도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0억 유로 정도 증가한 금액
 - 소규모(small) 중소기업과 대규모 중소기업 간 지출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데, 대규모 중소기업은 소규모 중소기업에 비해 24배 정도를 디지털화에 지출

▶ 자료 : 독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현황(KfW SME Digitalisation Report 2018), KfW, 2019.4

④ 독일, 중견·중소기업의 AI 활용 확산을 위한 AI전략 발표

- 독일 연방정부는 자국을 AI연구거점으로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18년 11월 AI활용을 촉진할 새로운 정책인 'AI 국가전략(AI Made in Germany)'을 발표
 - 주요 내용은 ①독일과 유럽을 선진적인 AI거점으로 구축하고 장래 독일의 경쟁력을 유지, ②책임 있는, 공익을 위한 AI개발, ③폭 넓은 대화를 통한 윤리적, 합법적, 문화적, 구조적인 AI사회도입 추진 등
- 독일 정부의 목적은 유럽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특히 AI분야를 비롯한 혁신기술을 폭 넓게 실용화함으로써 독일 중견·중소기업이 갖고 있던 핵심기술과 결합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
 - 구체적으로는 연방경제에너지부가 진행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상담창구인 기존의 '중소기업 4.0 역량(Competence) 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혁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 또한 대기업보다 AI기술 사용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AI의 가능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인 활용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18년 12월에 AI활용 사례를 담은 온라인 맵을 공개
- 독일 정부는 AI전략을 통해 AI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품 분야에서 활발한 창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산업 전반의 VC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
 - 특히 AI사업은 성장을 위해서는 풍부한 자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연구실로부터 많은 스핀오프(spin-off)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
- 독일 정부는 앞으로도 기존의 스타트업 자금 지원책을 지속하는 한편 독일의 VC나 자금차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할 예정
 - 예를 들면 KfW는 VC 및 벤처용 자금대부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액을 '20년까지 연간 2억 유로로 증액하고 혁신적인 급성장을 이룬 기업에 대해 설립초기, 성장기에 적극적으로 용자를 실시하는 체제를 정비할 계획

▶ 자료 : 독일, 중견·중소기업의 AI 활용 확산을 목표로 한 AI전략 발표(連邦政府はAI戰略を發表、中堅・中小企業への浸透を狙う(ドイツ)), JETRO, 2019.5

5 일본, 중소기업 기업 당 특허출원 건수는 대기업의 1/20 이하

- 최근 일본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건수는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에 불과
 - ‘10년~’17년 대기업은 특허출원 건수가 감소하고 출원 기업 수는 증가경향에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출원 건수, 출원 기업 수 모두 증가 경향
 - 그러나 출원 건수를 보면, ‘17년 기준 대기업이 84.3건/社, 중소기업은 3.5건/社으로 큰 차이가 존재
 - 실용신안은 ‘17년 기준 대기업이 2.3건/社 중소기업 1.3건/社으로 약 2배 차이를, 의장은 대기업 14.0건/社 중소기업 2.9건/社으로 약 5배 차이
- 지식재산권 소유 상황을 보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특허권에서 9.9배, 실용신안권 9.7배, 의장권 17.8배의 소유율 차이가 존재
 - 중소기업 전체로 보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중 하나라도 소유한 기업은 10.1%로 중규모 기업 10.7%, 소규모사업자 9.6%와 비슷한 수준
- 지난 3년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보유 효과에 대해 상표는 ‘모방품이나 유사품 배제’(52.%) ‘기술, 상품 등의 브랜드파워 제고’(45.9%)라고 답변
 - 특허는 ‘타사 진입을 막고 시장 확보’(54.5%), ‘모방품이나 유사품 배제’(52.0%)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답한 반면 실용신안은 ‘특별히 없다’가 27.2%, 의장은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지식재산 활동을 실시할 때의 과제로는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인재 부족’이 36.3%로 가장 많았고, ‘지식재산에 관련된 정보·지식 부족’ 33.1%, ‘지식재산에 할애할 시간 부족’이 30.5%를 차지
 - 지식재산 활동이 경영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지식재산 활동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이 49.4%로 약 절반을 차지
- 일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활용의 이점이나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이 중요

▶ 자료 : 일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활동에 관한 기본조사 보고서(「中小企業の知的財産活動に関する基本調査」報告書), 特許庁, 2019.4

⑥ 일본, 중소기업의 현금외 거래 지불수단은 신용카드가 50% 정도 차지

- 현재 일본 중소기업은 현금외거래 지불수단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스마트폰 QR코드결제’ 등의 이용이 확대될 전망
 - 거래처나 고객과 ‘현재 주로 활용하고 있는’ 현금외거래 지불수단으로는 소매업의 52.4%, 서비스업의 43.8%가 ‘신용카드’라고 답해 다른 결제수단을 압도적으로 상회
 - ‘향후 (추가로) 활용하고 싶은’ 지불수단으로는 ‘신용카드’가 소매업(34.7%), 서비스업(29.9%) 모두 여전히 높은 경향
 - 그러나 ‘스마트폰 QR코드 결제’(소매업 36.9%, 서비스업 26.8%)가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이고, ‘스마트폰 바코드 수납’(11.2%, 7.6%) ‘전자화폐(교통·유통계열)’(15.8%, 11.8%)는 현재보다 향후 이용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게 조사
- 한편 현금외거래 지불수단 활용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
 - 소매업·서비스업 모두 종업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현재 활용하지 않음·관계없음’, ‘앞으로도 전혀 관심이 없음·관계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종업원 4인 이하는 모두 약 5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
 - 소매업과 서비스업을 더욱 세분해 분류한 결과, 여관업, 의약품·화장품소매업, 가구소매업, 음식점 등이 비교적 이용의향 비율이 높은 수준
 - 이들 업종은 인바운드의 영향을 크게 받거나, 상품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받는 현금외거래 결제의 혜택이 크다는 이유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생각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추정
- 일본 정부는 현재 8%인 소비세를 오는 10월에 10%로 인상할 계획인데,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캐시리스(cashless) 결제’ 시 해당금액의 5%를 포인트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여관업 등을 중심으로 일부 업종은 이미 현금외거래 지불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기업은 대체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
 - 이런 가운데 10월부터 시작되는 현금외거래 지불 및 소비자 포인트 환원 사업은 소규모사업자가 다양한 현금외거래 결제에 대응할 좋은 기회

▶ 자료 : 일본 중소기업의 현금외거래(cashless) 지불수단 현황 및 향후 이용 의향(中小企業におけるキャッシュレス支払手段の現状と今後の意向), 信金中金 地域・中小企業研究所, 2019.4

7 일본, 민관펀드가 벤처기업 자금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산업혁신투자기구(JIC)는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지난 '09년 7월 설립된 주식회사 산업혁신기구(舊 INCJ)를 전신으로 하는 민관펀드
 - VC업계 전체를 놓고 보면 IT관련 투자가 대부분이지만 舊 INCJ는 건강·의료, 산업 기계, 소재 등 민간의 리스크 머니가 부족한 분야에 투자를 진행
 - 최근 수년간은 AI, 우주개발 관련 벤처에도 투자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리스크 머니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존재감을 과시
 - '18년 9월 舊 INCJ가 JIC로 상호를 변경하고 새로운 체제로 시작했으며, 신설 분할하는 형태로 INCJ(現 INCJ)가 JIC의 100% 자회사로 발족
- 기존의 INCJ가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했다면 JIC는 산하에 조성하는 펀드를 경유한 투자를 중심으로 삼을 계획
 - 경제산업성은 '18년 10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신약개발 관련 분야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1호 펀드 JIC-US 조성을 인가
 - 이와 동시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벤처기업, 일본 PE(private equity), 일본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등 4가지 영역에서 펀드 조성 및 투자를 발표
 - 그러나 보수문제로 인한 JIC 경영진의 사퇴문제가 발생하면서 투자실적이 없던 1호 펀드를 정산한다는 소식과 함께 향후 일정 논의는 중단된 상태
- 일각에서는 민관펀드의 불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일본 벤처에 대한 자금공급이란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민관펀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
 - '13~'18년 일본 내 벤처가 조달한 자금 가운데 舊 INCJ,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 서 유입된 자금이 10% 이상인 것으로 추정
 - 민관펀드의 직접투자·펀드출자가 리스크 머니의 양을 뒷받침했다는 점, 민간VC에 대한 펀드출자가 민간VC를 육성했다는 점이 결과적으로 최근 수년간 일본의 벤처 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
 - 연구개발형 벤처의 자율적인 생태계가 구축·정착되기 위해서 민관펀드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자료 : 일본, 벤처기업 자금 공급과 관련한 민관펀드의 역할(国内ベンチャーにとっての官民ファンド),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19.4

⑧ 일본,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가 실질GDP 상승 효과 유발

-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연구개발세제) 제도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시험연구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 (2017년도 세제 개정) 제도 중심인 ‘총액형’이 시험연구비 증감에 따라 세액공제율도 증감하는 제도로 재검토되고, 새로 ‘제4차 산업혁명형’ 서비스 개발이 추가
 - (2019년도 세제 개정) 증감 시험연구비 비율이 5%를 넘는 경우의 특례를 8%를 넘는 경우로 재검토, 그 적용 시한을 2년 연장
- ‘17년도의 경우 50.3%의 기업이 연구개발세제를 이용하였고, 그중 ‘총액형’은 87.9%인 반면, ‘총액형의 공제상한 10% 추가 제도’는 14.5%, ‘오픈 이노베이션형’은 6.7%에 불과
 - 한편, 시험연구비 증가율에 따라 총액형의 공제율을 증가하는 구조와 총액형으로 공제상한을 추가하는 시스템이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응답도 각각 17.4%를 차지
- 연구개발투자액을 결정할 때 연구개발세제의 감세 효과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과반수인 53.5%를 차지
 - 연구개발세제의 시험연구비 최대 공제율이 17%에서 12%로 낮아질 경우 ‘영향이 있다’라는 응답은 약 4분의 1인 24.2%이며, 80% 이상의 기업은 중소기업 전체 연구개발투자액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
 - 반면, 17%에서 22%로 인상될 경우 80% 이상이 중소기업 전체 연구개발투자액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
- 연구개발세제의 GDP 상승 효과를 매크로모델을 이용해 분석해 보면, 실질 GDP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연구개발세제의 과제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촉진 지원, △연구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의 리스크 감소, △안정적인 지원 조치로서의 연구개발세제 등인데, 향후 이를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

▶ 자료 :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연구개발세제)의 경제 효과에 관한 조사 결과(平成30年度中小企業技術基盤強化税制(国税)及び中小企業等の試験研究費に係る特例措置(地方税)の効果に関する調査報告書), 経済産業省, 2019.3

9 일본, 지자체가 신약개발 벤처 지원을 주도

- 신약이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승인·수익화까지 시간이 길고, 필요한 자금이 많으며 성공확률이 낮아 예측이 어렵다는 점
 - 일반적으로 기초연구부터 승인까지 약 15년, 100억 엔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성공확률은 0.004% 정도
 - IT관련 연구와 비교하면 대규모 R&D설비가 필요하고 실용화까지 시간이 걸림에도 기술진전이 더디고 100억 엔을 넘는 임상연구를 실현하려면 공동연구·라이선스 아웃(license out) 등 외부와의 협력이 필수
- 신약개발 벤처가 갖고 있는 과제를 감안한 지원책은 △인재 사무실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원 소개, △사업계획 작성 지원, △VC와 제약회사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작업 등으로 분류
- 신약개발 벤처의 과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실시
 - 기초연구 실적이 있는 대학·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한 신약개발 생태계를 정비하고 그 내부에서 프로그램으로 지원
 - 일례로 가와사키시(川崎市)의 킹 스카이프런트(KIGN SKYFRONT)는 실험동물중앙연구소, 가와사키 생명과학·환경연구센터를 필두로 연구시설을 집약하고 기업을 유치
 - 특정시설에 의존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로, 도쿄도(東京都)는 지난해부터 신약개발로 특화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실시
 - 제약회사, 지원기관, 투자자 등이 모여 있는 도쿄의 장점을 활용
- 향후 지자체에게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합해 신약개발 벤처에 제공하는 한편 지역 대학·연구시설과 연계하면서 주도적으로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것
 - 그 가운데서 대학·연구시설의 기술이 의약품으로 산업화되는 과정에서는 VC나 제약회사 같은 관계자의 관여가 성패를 가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바이오 벤처 창업초기부터 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

▶ 자료 : 일본, 지자체가 주도하는 신약개발 벤처 지원에 대한 기대감 고조(自治体主導による創薬系ベンチャー支援への期待), 野村総合研究所, 2019.3

10 일본, 지방 성장을 목표로 한 ‘글로벌 성장전략’ 발표

- ‘글로벌 성장전략연구회’는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을 성장센터로 육성해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글로벌 성장전략’을 발표
 - ‘지방의 성장 없이는 일본의 성장이 없다’는 슬로건 아래, 인구 제약 하에서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중요하다고 지적
 - ①지방기업을 세계시장으로 직접 연결시켜 비즈니스의 국제화를 추진할 것, ②캐치업(Catch up)에서 프론트 러너(Front Runner)형 성장으로의 전환 및 활력 있는 경영을 실시할 것
 -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제품수출,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인바운드 흡수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략을 책정
-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일본 중소기업은 축소되는 국내시장을 넘어 비즈니스의 국제화로 세계시장에 제품·농림수산물·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해외 시장 정보를 즉시 입수하고, 해외진출을 통한 편익을 직접 누리고, 해외시장의 성장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 중요
 - 지방기업이 세계시장에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강점인 지역의 기술을 활용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경쟁력 높은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루트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 중소기업이 수출에 나서기 위해서는 현지시장의 정보수집, 판로개척, 현지 수요에 맞는 상품 개발 등이 필요하고 이를 부담할 만큼의 체력이 필수
 - 중소기업은 자체 연구개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 산총연(産総研, 산업기술종합연구소), 공설시(公設試, 공설시험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이 필요
-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학, 산총연(産総研), 공설시(公設試) 같은 최신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지원이 중요
 - 연구개발기관이 중심이 돼 벤처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사업 창출을 추진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어 ①대학·공설시의 설비 강화, ②공설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재육성, ③산총연의 ‘차세대 지역센터’ 방식 도입, ④사업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강화, ⑤생산성 향상 등의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

▶ 자료 : 일본, 지방의 성장을 목표로 한 ‘글로벌 성장전략’ 발표(グローバル成長戦略~地方の成長なくして、日本の成長なし~), 経済産業省, 2019.5

11 일본, 스타트업 펀딩 프로그램의 규모 및 안정성 부족

- 일본의 스타트업 펀딩 프로그램 가운데 ①경제산업성·NEDO의 ‘연구개발형 벤처지원 사업’, ②총무성의 ‘ICT 혁신창출 챌린지 프로그램(i-challenge!)’, ③문부과학성·JST의 ‘대학발 신산업창출프로그램(START)’을 비교
 - 경제산업성·NEDO의 ‘연구개발형 벤처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특정 기술시즈(seeds)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으로, 창업 전부터 사업 확대까지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시
 - ‘ICT 혁신창출 챌린지 프로그램(i-challenge!)’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실증’을 12개월간 최대 7,000만 엔 보조하며, VC와 정부가 협조하는 구조
 - 문부과학성·JST의 ‘대학발 신산업창출프로그램(START)’은 기술시즈의 사업화를 지향하는 대학 등의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
- 해외 각국 스타트업 펀딩프로그램과 비교할 경우 일본의 스타트업 펀딩프로그램은 유럽, 미국에 비해 규모나 안정성 측면에서 크게 부족
 - 제도설계 측면에서는 일본 프로그램은 ‘정부와 VC가 협조해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으나 향후 개혁에 있어서는 제약이 될 가능성이 존재
 - 유럽의 프로그램은 심플한 제도설계와 운영프로세스의 효율성이 특징으로, ‘투입한 예산에 대한 성과(혁신창출)의 최대화’를 철저히 추구
 - 미국의 SBIR은 공모 시 ‘각 부처의 조달니즈’와 ‘세계 기술 트렌드’를 감안해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를 공모테마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
- 대규모 프로그램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별도의 새로운 집행기관을 설치하고 ‘스타트업용 펀딩프로그램 운용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이 필요
 - 구미(歐美)의 경우, 집행기관의 프로그램 책임자와 팀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큰 재량을 갖는 동시에 하나의 프로그램에 장기간 참여해 ‘스타트업 펀딩프로그램의 프로페셔널’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축적
 - 또한 과제설정·공공조달형 프로그램 실현에는 ‘공공섹터의 조달 니즈를 잘 아는 과학기술의 전문화가 프로그램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가 필요

▶ 자료 : 최강의 스타트업 보조금 실현을 위한 펀딩프로그램 비교연구(「最強のスタートアップ補助金」の実現に向けて～日・米・欧におけるスタートアップ向けファンディング・プログラムの比較研究),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2019.5

12 OECD, 미래 일자리 변화 대응을 위해 성인학습 강화 필요

- 기술진보, 글로벌화 및 고령화에 따라 일자리의 세계가 변화하고, 새로운 조직 비즈니스 모델과 근로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출현
 - 기술변화와 세계화로 인한 잠재적인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
 - 특정 일자리 및 직무가 사라지는 반면 다른 일자리 및 직무가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현재는 쇠퇴 산업 및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부상
- 고용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고용보호 조치가 필요
 - 새로운 비표준적 노동이 출현하면서 단일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정년 근로자들의 노동을 위해 설계된 고용 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
 - 단체교섭은 미래 일자리의 모습을 결정하는 보완적이며 유연한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 단체교섭은 근로자와 기업들이 노동의 변화가 가져오는 기회와 과제에 적응하도록 지원
- 성인학습의 강화는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데 매우 중요
 - 효과적인 성인학습은 역량의 약화를 방지하고 감소하는 일자리와 부문에서 확장되는 부분으로의 전환을 촉진
 - 정책적으로 기업과 개인들 사이에 학습 문화 구축, 훈련 참여에 대한 시간 및 재정적 제약 해소, 고용 상태에 따른 훈련 접근의 불평등 해소 등이 필요
- 포용적이면서도 혜택을 주는 미래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

▶ 자료 : OECD, 2019 고용-미래 일자리-에 대한 전망(OECD Emplo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 OECD, 2019.4

13 OECD, 공공-민간 혼합형 벤처 캐피탈에 대한 정책적 관심 필요

- OECD 국가 정부는 벤처 캐피탈(VC)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정부 자금이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
 - 미국의 경우 '90년대 후반부터 '00년대 초까지 VC 지원을 받은 기업이 창출한 고용이 전체 고용의 10% 정도를 차지
 - 또한 VC 지원을 받은 기업은 '73년부터 '13년까지 설립된 미국 주식 공개기업의 43%, 같은 기간 설립된 주식 공개기업 총 R&D 지출의 83%를 차지
- 공공 및 혼합(mixed) 자금을 지원받은 스타트업들은 민간 VC 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에 비해 몇가지 차이가 존재
 - 1차 라운드의 타겟팅 측면에서 보면, 공공지원 스타트업은 민간지원 스타트업에 비해 대상 스타트업의 업종이 높고, 설립자들은 학업 경험이 있고 박사학위를 보유 가능성이 높은 수준
- 순수하게 공공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은 2차 라운드의 자금조달과 성공적인 엑시트 측면 모두 순수 민간 지원 스타트업보다 성과가 저조
 - 민간 및 공공 투자자의 혼합 신디케이트와 적어도 한번 이상 거래한 기업의 경우 2차 라운드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사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 VC의 공공투자 규모 확대에 대한 관심이 유럽에서 특히 증가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는 혼합모델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
 - 또한 공공 VC는 공공 헬스, 지역 개발, 국가 안보, 환경 조건 등 대안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이러한 공공 목표가 앞서는 기술 분야에서 공공 VC의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 스타트업의 국제적 이동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 이를 통해 어떤 국가에서 '스타트업 유출(start-up drain)'이 상당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정부 지원 VC에 매우 중요

▶ 자료 : OECD, 공공 벤처 캐피탈 투자에 대한 분석(Never walk alone? A cross-country analysis of governments venture capital investments), OECD, 2019.3

14 OECD, 혁신 생태계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 실시

- 디지털 시대 혁신 지원을 위해 OECD 국가들은 디지털, 인공지능 등 다양한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실시
 - (디지털 전략) 혁신 자극 및 성장, 복지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기술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잠재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
 - (인공지능 전략) 각국들은 인공지능의 경제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적용과 개발에 노력
 - (과학, 기술 및 혁신 전략) 일부 국가의 경우 디지털 전환이 과학기술혁신 전략 방향의 핵심이며, 일부 국가는 디지털화 관련 목표가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핵심
 - (산업정책 전략) 일부 국가들은 특정 기술 영역 및 부문에 초점을 맞춘 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실시
- OECD 국가들은 혁신 생태계의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추진
 - (디지털 기술 적용 및 확산을 위한 이니셔티브)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구축, △디지털 기술 투자, △새로운 기술의 시연 및 테스트 촉진 등
 - (협력적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위한 이니셔티브) △공동연구 및 혁신센터, △중개기구,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를 포함한 협력 촉진자,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크라우드소싱, 개방된 도전 및 리빙 랩(living labs) 등
 - (디지털 기술의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디지털 혁신에 의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실험 강화, △보조금 및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연구 및 혁신 활동 촉진,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의 연구 및 혁신 지원 등
 - (디지털 시대의 혁신적 기업가정신 지원을 위한 이니셔티브) △초기단계 비즈니스의 엑셀러레이션을 지원, △디지털 스타트업 생태계의 명성 강화, △광범위한 혁신 생태계간 연결 강화 등
- 혁신정책의 지형이 끊임없이 진화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접근법과 실험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

▶ 자료 : OECD 국가들의 디지털 혁신 정책에 대한 검토(THE DIGITAL INNOVATION POLICY LANDSCAPE IN 2019), OECD, 2019.5

Ⅲ

주요일정



① Tech Open Air (독일 베를린, 2019.7.2.~5)



- TOA는 유럽의 선도적인 기술 행사로, △150명 이상의 강사들이 기술·과학·예술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컨퍼런스, △베를린 소셜·스타트업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세틀라이트 이벤트(Satellites Event), △네트워킹 기회 등으로 구성되며, 매년 20,000명 이상이 참가
- 연락처 : hello@toa.berlin
- URL : <https://toa.berlin/>

② RISE (중국 홍콩, 2019.7.8.~11)



- 아시아 최대의 기술 컨퍼런스로 평가받는 RISE는 구글, 시스코 시스템즈, 우버, 레노보 등의 세계적인 기업 및 약동하는 스타트업 리더들의 강연 및 기술·성장·경영·투자 등 다양한 주제별 세미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전 세계 100여개 국 16,000명 이상이 참가
- URL : <https://riseconf.com/>

③ STARTUPFEST (캐나다 몬트리올, 2019.7.9.~12)



- 스타트업을 위한 뮤직 페스티벌을 표방하는 STARTUPFEST는 스타트업·투자자·협력사 등을 위한 다양한 강연, 워크숍, 기술 부트캠프 등을 진행하는 한편, 스타트업 피치(Pitch Series)를 통한 상금 경진대회 및 투자 연결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20여 개국에서 7,000명 이상이 참가
- URL : <https://startupfestival.com/>

4 OSCON 2019 (미국 오레곤, 2019.7.15.~18)



- 본 컨퍼런스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 분산 컴퓨팅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최신 기술들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며 기계 학습, 클라우드 기반의 DB, 이더리움과 자바 등에 대한 트레이닝 세션을 제공
- 연락처 : confreg@oreilly.com
- URL : <https://conferences.oreilly.com/oscon/oscon-or>

5 Entrepreneur Summit (인도 뉴델리, 2019.7.17.~18)



- 9회를 맞이하는 본 컨퍼런스는 500여 명의 인도와 아태 지역 기업가, 투자자와 혁신가가 참석하며, 리더십, 혁신, 투자 및 경영과 성장 등 4개의 테마로 다수의 기조 연설과 세션, 라운드테이블, 마스터클래스를 진행
- 연락처 : conference@entrepreneurindia.com
- URL : <https://www.entrepreneurindia.com/>

6 Seaside Startup Summit (아르메니아 세반호, 2019.7.28.~8.3)



- 본 컨퍼런스는 일주일 간 야외에서 진행되는 스타트업 행사로 다수의 강연, 기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타터(Starter) 프로그램과 엑셀러레이팅(Booster) 프로그램, 코딩 경진대회(FireCode Marathon) 및 이색적인 환경에서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 연락처 : info@sss.am
- URL : <https://www.seasidestartupsummit.com/>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Global SME Policy Trend

발 행 처 : 중소기업연구원

발 행 인 : 김 동 열 원장

편집위원 : 전인우 부원장, 김광희·백필규·심우일 수석연구위원 등

주 소 : (07074)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

전 화 : 02-707-9800, 팩스 : 02-707-9894

홈페이지 : <http://www.kosbi.re.kr>

문 의 처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 02-707-9873

인 쇄 처 :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02-2279-9241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